

국문은 아래 참조

**Statement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s. Elizabeth Salmón
on financial situation of civil society actors working on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ll for support for civil society on DPRK human rights

26 February 2025

In the past few weeks, several human righ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ased in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ed a serious challenge in continuing their work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ue to sudden suspension or cut of funding.

These organizations have for years been playing a unique and crucial role i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 DPRK in the complete absence of civil society inside the DPRK.

These organizations are not given access to enter the DPRK nor speak to victims there nor to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thin such a challenging environment, they have creatively built working methods that allow them to make a difference. They interview escapees from the DPRK and document their stor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upport accountability activities (both judicial and non-judicial) and provide assistance to escapees ranging from financial to legal to psychosocial. They support young escapees to become leaders on the human rights issue, amplify voices of victims, and advocate on their behalf and for policy change at the international fora,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vide expert advice to other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and they do much more.



Civic space, the environment that enables individual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policy-making that affects their lives, is an integral element to fulfilling human rights. Donor priorities change. However, predictable and sustainable funding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s fundamental for the existence and protection of civic space.

As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 am concerned that the discontinuation of human rights work by civil society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on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of people in the DPRK and o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 strongly call on States, cities, private donors and individuals to take time to learn about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reassess their priorities to support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o have been working tirelessly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DPRK. Human rights are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EN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정 상황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성명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요청

2025년 2월 26일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 내 시민사회단체 몇몇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 및 삭감으로 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지속해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시민사회단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 시민 사회가 전적으로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해당국 내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접근성이 주어지지 않고, 해당국 내 피해자 및 정부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방식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이탈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이야기와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사법 및 비사법적) 책임 규명 활동을 돕고, 이탈자에게 금전적 지원부터, 법적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젊은층의 이탈자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들을 대신하여 국제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보 접근 확대를 가능토록 했고, 다른 국가 및 유엔 측에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개인과 시민 사회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마련에 참여 및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공간은 인권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부자의 우선순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공간의 존립과 보호를 위해, 예측 및 지속 가능한 자금을 인권 단체에 제공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재정적인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 도시, 민간 기부 단체 및 개인 기부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시간내어 살펴보고, 해당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 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권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